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道 칠머리 당곳의 춤 研究

指導教授 裴 英 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專攻

李 昌 勳

1991年度

濟州道 칠머리 당굿의 춤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李 昌 勳

指導教授 裴 英 浩

1991年 7月 日

李昌勳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準함.

1991年 7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 審	인
副 審	인
副 審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1
2. 研究 問題	4
3. 理論的 背景	5
1) 굿의 由來	5
2) 굿의 進行	10
3) 巫服 및 小道具	19
4) 巫 樂	21
II. 研究 方法	22
1. 研究 對象	22
2. 研究 期間	22
3. 研究 方法	22
III. 結果 및 考察	23
1. 요왕질침의 춤사위 形態	23
1) 요왕문 돌아봄	23
2) 언월도 베기	25
3) 작대기로 치우기	26
4) 은따비로 파기	27
5) 발로 고르기	28
6) 물메로 깨기	30
7) 삼태기로 치우기	30

8) 미레깃대로 고르기	31
9) 이슬다리 놓기	32
10) 나비다리 놓기	33
2. 춤사위 분석	33
1) 무무의 特徵	33
2) 무무의 機能	35
IV. 結論 및 提言	36
1. 結 論	36
2. 提 言	36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무속은 우리 민족의 태동과 함께 배태되어 민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중예술의 모태가 되었고¹⁾ 민중들과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천시되어 왔고, 또 대중사회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현실이다.²⁾

굿은 우리 민족의 오랜 생활사에서 형성된 종교의례인 동시에 예술이다. 그 속에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체계와 사상이 있고 동시에 문학, 음악, 무용, 연극이 있다. 민족·문화를 논할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문화 유산인 것이다.³⁾

무속의 중심은 굿이다. 신과 대화하고 교섭하는 광장인 이 굿의 이해없이 무속은 이해할 수 없다.⁴⁾

무당의 儀式에 의해 주재되는 굿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 양식의 무속적 요소를 포함하여 특징지워주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현재까지 계속케 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⁵⁾

인간은 우선 신을 즐겁게 만족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의형식의 의식 절차를 이루고 있으며, 이 의식의 절차가 무속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민속 예술을 이해하고 연구, 분석함에 있어 무무의 연구는 굿 양식에 있어서 춤의 독자적인 기능과 특징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토속신앙인 무속의 무용적 요소는 오늘날 무용 예술을 발전, 연구함에 그

주1) 김은경, 「한국민속무용연구」 형설출판사, 1982, p. 55.

주2) 임학선, "진오귀 굿의 무당춤에 대한 고찰", 「창무회 창립 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 5.

주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 1.

주4) 「앞의 책」, p. 1.

주5) 임현선, "황해도 내림굿 춤사위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 65.

밀거름이 되어온 까닭으로 그 형식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정립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⁶⁾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도된 굿 춤에 대한 선행자료들로는 진오귀굿의 무당춤에 고찰(장덕순, 1969⁷⁾, 임학선, 1975⁸⁾, 1986⁹⁾, 황해도 철물이굿 연구(이노연¹⁰⁾, 1982, 정병호¹¹⁾, 1980), 양주 별산대 놀이 춤사위 연구(김성대¹²⁾, 1970, 임현선¹³⁾, 1986, 한명옥¹⁴⁾, 1986), 별신굿 춤 연구(김영희¹⁵⁾¹⁶⁾, 1981, 1986), 사자춤에 관한 연구(강인숙¹⁷⁾, 1986), 수망 오귀굿 춤 연구(강인주¹⁸⁾, 1982), 의식무용 춤사위 연구(김매자¹⁹⁾, 1982), 민속무용 춤사위(정재만²⁰⁾, 1982), 동해안 지방의 무속 무(김정여²¹⁾, 1982), 북한산 도당굿에 대한 고찰(李在崑²²⁾, 1979) 등이 있으며 점차 잊혀져가는 무속에서 우리 무용의 토속적인 형태와 근원을 찾아 민속무용

주6) 이노연, "황해도 철물이 굿 춤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 85.

주7) 장덕순, "진오귀굿" 「대한일보」, 1969

주8) 임학선, "진오귀 굿의 무당춤에 대한 고찰",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5~34.

주9) 임학선, "진오귀 굿의 무당춤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5

주10) 이노연, "황해도 철물이굿 춤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85~102

주11) 정병호, "황해도 철물이굿" 「공간」, 제28권 제1호, 공간사, pp. 103~111

주12) 김성대, 「양주별산대놀이」, 서울:무형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1970.

주13) 임현선, "황해도 내림굿 춤사위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65~84

주14) 한명옥, "양주 별산대놀이 춤사위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109~120.

주15) 김영희, "별신굿 춤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121~142

주16) 김영희, "별신굿 춤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주17) 강인숙, "사자춤에 관한 연구", 「창무회 창립10주년 기념 창무회원 논문집」, 1986, pp. 164~184

주18) 강인주, "수망 오귀굿의 춤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주19) 김매자, "의식무용 춤사위 연구", 「한국 전통무용의 용어 및 춤사위 연구」, 제1권, pp. 3~5

주20) 정재만, "민속무용 춤사위" 「한국 전통무용의 용어 및 춤사위 연구」, 제1권, pp. 6~14

주21) 김정여, "동해안 지방의 무속무", 「한국무용연구」, 제1권, pp. 19~34

주22) 李在崑, "북한산 도당굿에 대한 고찰", 「향토 서울37호」, 서울특별시 사학편집위원회, 1979.

개발과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도 영등굿 중 칠머리당굿에서 무무를 연구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濟州道에는 심방이라 불리는 주술적, 종교적 직능자가 있다. 심방은 옛적부터 도민의 종교적 기능으로서 生活의 여러 방면에 커다란 기능을 해 왔음은 물론 오늘날에도 역시 민간신앙의례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부락의 공적 제의나 사적인 주술적 종교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²³⁾

요즘 고향하는 마을은 아직도 삶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며 사는 바닷가를 제외하고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무속신앙이 주축이 되는 굿의 종류와 규모도 날이 갈수록 축소 되고있다.²⁴⁾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반영과 함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해녀의 존재가 경제적인 면에서 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영등굿은 지리성, 해양기상, 해녀사회의 생업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계승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의 영등굿은 제주도 민중들의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면 복을 빌거나 사람에게 굿이나 해주고 죽은 사람에게 저승길을 잘가라고 축원하는 이를테면 기복 신앙 정도의 미신적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다.²⁵⁾

그러나 제주도의 굿에서 춤이 갖는 기능은 그 춤의 미적 범주와 함께 쉽게 삶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악기의 박자에 맞추어 심방이 어떤 행동을 모방하여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춤은 심방이 굿판에서 의례를 집행하여 추는 춤이므로 이 심방의 굿을 관찰해 봄으로써 거기에서 춤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낼 수 있다.

주23) 현용준, 「濟州道 巫俗研究」 집문당, 1986. p. 15.

주24) 황루시, 「한국의 굿과 무당」 문음사, 1988, p. 12

주25) 윤광봉, 이강렬, 「굿과 무당」, 경서원, 1987

濟州道の 영등굿은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의 여씨 할망당 영등굿과 성산읍 신양리의 하로산당 영등굿,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 영등굿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 굿인데, 본향당이라는것은 마을 전체를 차지하여 수호하는 당신을 모시는 곳이다.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일컫게 된 것은 그 지명에서 유래했다. 이 당은 건입동의 동쪽, 제주항과 사라봉 중간의 바닷가 언덕위에 위치해있다. 이곳의 지명이 속칭 '칠머리'이므로 '칠머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영등신이란 어부나 해녀의 해상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신이므로 건입동에서는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굿을 벌이면서 영등신을 주신으로 하여 영등굿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칠머리당에서는 일년에 두번 굿을 하는데 그것은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다. 제차에는 무용을 주로하는 요왕맞이와 언어적 표현을 주로하는 본풀이, 극적연출을 주로하는 놀이 형식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요왕맞이 부분을 중심으로 칠머리당굿의 예능적 특징, 즉 발동작과 춤사위의 형태적 의미와 특징 그리고 굿에 나타난 춤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칠머리당굿에서 춤의 본질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제주 민속 무용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研究問題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코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칠머리당굿의 요왕맞이 부분의 춤사위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 2) 굿에서 나타난 춤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 3) 칠머리당굿 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3. 理論的 背景

1) 곳의 由來

조선조 성종때 편찬된 풍속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를 보면 “2월 1일에 귀덕(오늘의 한림읍에 있음) 김녕(오늘의 구좌읍에 있음) 등지에서 목간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한다. 애월리 사람들은 때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고 채색된 비단으로 꾸민 약마회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한다. 이 行事는 15일에야 끝나는데 이것을 燃燈이라 한다.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조선조 순조때 홍석모가 편찬한 「東國歲時記」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오늘날의 영등굿과 비교하여 보면 그 제일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되어있으니 이는 오늘날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구좌읍 우도 등지에서 2월 15일에 영등송별제를 하는것과 일치하며 이달에 승선을 금하는 관습이 있음도 오늘날 영등송별제를 지내기까지는 어로에 나가지 않는 관습과 일치한다. 그리고 귀덕, 김녕, 애월 등이 지금 영등굿이 분포하는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보아 영등굿이 성행하던 곳도 어촌이며 이 영등굿은 조선조 이전부터 제주 어촌 부락제로서 성행 했음을 알수있다.²⁶⁾

이러한 역사를 가진 영등굿에서 오늘날까지 민간에 전승되는 것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신명은 ‘靈登’ 또는 ‘영등할망’이라 하고 제명은 마을에 따라 ‘영등맞이’ ‘영등손맞이’ ‘영등제’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영등굿’ 이라는 이름이 일반화 되어 있다.
- ② 영등할망은 2월 초하루에 강남 천자국 또는 외눈백이섬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섬의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씨, 전복씨, 소라씨, 천초씨 등을 뿌려 주어

주2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重要無形文化財 解說〉 놀이와 의식편 1985, p. 130.

海女の 생업에 풍요를 주고 15일에 우도를 거쳐 本國으로 돌아간다.

- ③ 2월이 되면 바닷가의 보말이 다 속이 비는데 이는 영등할망이 돌아다니면서 다 까 먹었기 때문이다.
- ④ 영등이 들어오는 날(2월 1日) 날씨가 추우면 옷 좋은 영등이 왔다하고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왔다 한다.
- ⑤ 이 기간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말아야 하며 빨래를 해서도 안된다. 만일 빨래를 하여 풀을 먹이면 집에 구더기가 인다.
- ⑥ 영등굿을 할 때 심방이 “미역이 풍년이 든다” “조가 풍년든다” 등의 예언에 따라 흥풍이 달라지며 영등신을 보낼 때는 짚으로 작은 배를 만들어 갖가지 제물을 싣고 바다에 띄워 치송한다.²⁷⁾

이러한 전승들이 일반적이는데 종합하면 영등신은

- ① 할망(할머니)이라 불리우는 여신이요,
- ② 강남 천자국 또는 외눈백이섬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來訪神이며,
- ③ 풍우 등 기상과 관계깊은 神이고,
- ④ 해녀나 漁夫의 생업 및 농업에도 관계깊은 신임을 추측할 수 있다.²⁸⁾

본토, 남한 일대에도 이 신의 흔적이 보이는데 주로 풍신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바람은 海上 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濟州道의 경우에는 해상안전, 풍어, 해녀채취물의 증식, 보호신으로 신앙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濟州道의 영등굿은 해방전까지만 해도 어촌 뿐 아니라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중산촌까지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一部 어촌에만 남아 있다. 이런 사실은 영등굿이 본래 어촌의 굿이었는데 농촌까지 번져나가다 다시 어촌으로 돌아와 어촌의 부락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영등신은 조선조 이전부터 어부와 해녀의 수호신적 성격

주27) 앞의 책 p. 302~303.

주28) 앞의 책 p. 302~303.

이 이루어져 어촌의 풍어부락제로서 영등굿을 성대히 행해왔고 그것이 농촌으로까지 세력을 뻗쳐 나갔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어촌의 풍어부락제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칠머리당굿도 이와 같은 풍어부락제로의 잔존형태이다.²⁹⁾

다음에는 이러한 由來를 가진 영등굿을 하는 濟州市 건입동 칠머리당굿에 대하여 살펴보자.

칠머리당의 神은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이다. 이 두 神은 夫婦神으로서 남편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을 전체의 土地, 주민의 생사, 호적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해 수호하고 부인인 용왕해신부인은 어부와 해녀의 생업 그리고 외국에 나간 주민들을 수호해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칠머리당굿은 의당이 이 본향당신을 위하여 굿이 되어야 할것이다. 다른 마을들에서는 그 마을의 본향당신에게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신과세제 등 당굿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건입동 칠머리당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굿이 없었고 一年에 두번 굿을 하는데 그것은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다.

영등신이란 어부나 해녀의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神으로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입동에서는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굿을 벌이면서 영등신을 主神으로 하여 위하는 영등굿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칠머리당굿 全體가 영등신에게만 바치는 굿은 아니고 그 일부 제차로 본향당신을 청해 부분이 있지만 굿의 大部分이 영등신에게 어부와 해녀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비는 굿으로 짜여져 있다.³⁰⁾ 그러니까 본향당신에 대한 굿은 一部 결들이는 것 뿐이고 실은 영등굿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향당신을 중시하지 않고 영등신을 중시하여 영등굿을 하게 된 이유는 건입동의 漁村的性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입동은 현재 濟州市 中心 시가를 이루고 있는 소위 市內 5개동의 하나다. 그러나 예전에는 제주성 동쪽 바깥의 조그마한 어촌이었다. 현재의 제주시의 중심은

주29) 앞의 책 p. 303.

주30) 앞의 책 p. 301.

제주목의 성 안이었고 이 성 동문쪽을 가로질러 산지천이 흘렀는데 그 하구가 포구로 되어 있었다. 이 포구를 '진들개'라 했는데 전입포로 한자表記를 하게 되었다. 이 전입포 근처에 어민들이 취락을 형성해서 어로와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이 취락이 오늘날 전입동이 되었고 그 포구가 오늘날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이 된 것이다. 1904年(광무 8년)의 통계(濟州牧三郡戶口家間總冊)에 따르면 전입리의 가호는 198戶, 人口는 481人으로 되어 있으니 예전에 가난한 어촌이었음을 가히 알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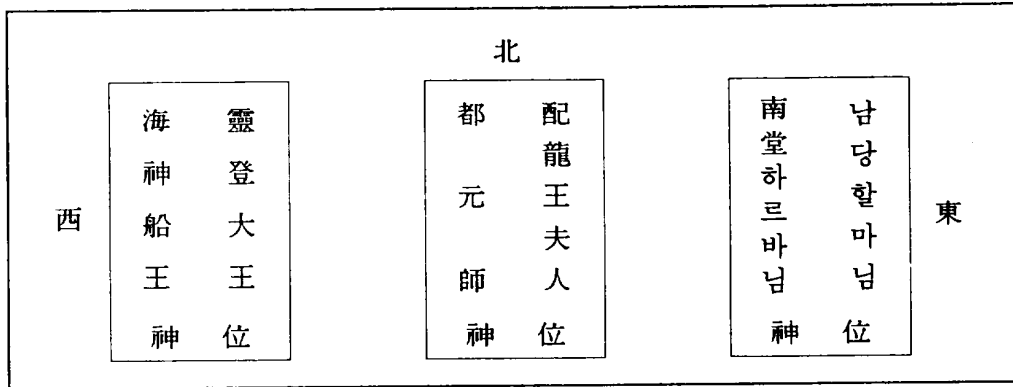
이러한 어촌이었으므로 본향당곳이 그들의 海上 生活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영등신에 대한 영등곳으로 치루어지게 되었고 이 마을이 오늘날 港口都市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역시 생업의 中心地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의 영등곳이 전승되어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칠머리당곳은 제주 어촌의 부락제인 영등곳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칠머리당곳의 제일, 당의 위치, 형태, 神位에 대하여 살펴보자. 祭日로 칠머리당곳은 해마다 두번 한다. 한번은 영등신이 들어오는 날인 음력 2月 1日에 하는 영등환영제요, 또 한번은 영등신이 제주도를 떠나는 전날인 음력 2月 14日에 하는 영등송별제다. 送別祭를 2月 14日에 하는 것은 영등신이 이 날에 칠머리당에서 송별제를 받고 다음날인 15일에 구좌읍 우도에서 송별제를 받아 떠난다고 하는데서 이다.

그리고 칠머리당은 濟州港 동쪽 沙羅峯의 중간쯤 바닷가는 편평한 언덕위에 위치해 왔다. 당의 형태는 58평 넓이의 장방형 울타리를 돌담으로 쌓고 북쪽 담벽엔 신위의 位牌를 만들어 붙였으며 그 앞에 제단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다. 출입구는 동쪽으로 내어 있다. 신위의 위패는 미신타파 云云하여 파괴해 버렸는데 파괴되기 이전 1973年 당시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주31) 앞의 책 p. 301~302.



(그림 1) 神位 位置圖 ³²⁾

지금은 제주항 확장공사로 사라봉과 수원지 중간지점으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이 칠머리당의 주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이며 그 神名을 줄여서 '都元師·龍王夫人 神位'라고 위패를 만들어 가운데 모시고 있다. 이 신이 본향당 신이 된 내력을 본풀에서 살펴보면, 도원수감찰지방관이 출생하기는 강남 천자국 가달국에서 솟아났는데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장성하니 天下名將이 되었다. 이때 강남천자국에 남북적이 강성하여 나라가 어지러우니 도원수가 천자님 앞에 들어가 變亂을 평정할 것을 허가받고 언월도, 비수검, 나무활, 보래활, 槍劍 등으로 차려나와 百萬大兵을 거느려 적진에 들어가 남북적을 평정하니, 천자님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고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원수는 모든 것을 사양하고 백만대병을 거느려 龍王國에 들어가서 용왕부인을 배필로 삼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먼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진을치고 어디로 갈까 살펴보니 穴이 '황새왓'으로 '사기왓'을 거쳐 산지(건입동) 칠머리로 떨어져 있으므로 이 혈을 밟아 칠머리로 내려와 坐定했다. 그래서 산지(건입동) 백성들이 낳는 날 생신을 차지하고 죽는 날 物故를 차지하고 호적, 장적을 차지하여 수호해주는 당신이 되었다. 龍王海神夫人은 만인 해녀와 상선, 중선을 차지하고 서양각국 동양삼국에 간 모든 자손들을 차지해서 장수장명과 부귀공명을 시켜주는 당신

주32) 앞의 책 p. 303.

이 되었다.

다음 '南堂하르바님' '南堂할마님' 부부신은 본래 이 당의 신이 아니었다. 濟州市 一徒洞 막은골이라는 곳에 있던 남당의 신이었는데 이 당이 시가 중심에 있어 헐리게되자 이 칠머리당으로 옮겨 같이 모시게 된 것이다.

끝으로 海神船王과 靈登大王이라는 신도 이 칠머리당의 신이 아니다. 해신선왕은 船神이요 영등대왕은 영등신이다. 이 두 신은 모두 해상 안전과 어업을 수호해주는 신이므로 여기 모셔 놓은것이다.³³⁾

이상과 같이 영등곳의 유래 그리고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 영등곳을 중심으로 곳이 형성된 연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2) 곳의 進行

곳을 하기위한 준비로서는 도제상이 차려지는데 도제상이란 마을 전체의 기원용으로 차려 올리는 祭床을 말하며 제물이나 폐백은 선주회장과 동장이 차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에는 초감제상, 영등호장상, 제석상, 용왕맞이상, 용왕차사상, 대령상, 공깃상 등이 있다.

초감제상은 초감제를 지낼때, 즉 곳을 처음 시작할 때 차리는 상으로 각 위패앞 제단에 진설하는데 그 진설방식은 대령상과 공깃상이 놓여진다.

대령상에는 馬糧(쌀·사발), 향로, 삼잔, 바라 등이 올려지고, 공깃상에는 제물(떡을 말함), 과일, 쌀 각 1그릇, 삼장, 맹두 등이 올려진다.

요왕맞이상은 '요왕맞이를 할 때 다시 차리는 제상으로 나까도전(큰 시루떡) 1, 제물(작은 시루떡과 돌레떡) 4, 과일 2, 계란 1, 채소 4, 삼잔, 쌀 2사발, 펜포(명태) 1, 소지 3장 등이 올려진다.

요왕차사상은 제물 3, 과일 1, 계란 3, 채소 3, 삼잔, 쌀 2사발, 펜포 1, 紙錢 3장, 무명3(3자씩) 등이 올려지고, 영등호장상에는 시루떡 1, 돌레떡 3, 과일 3, 계란 3, 채소 3, 삼잔, 쌀 1사발, 소지 3장, 지전 3장 등이 올려진다. (이상 제물

주33) 앞의 책 p. 305.

의 단위는 접시임)

그리고 영등호장상 밑에는 전복, 소라, 문어 각 3접시, 오곡씨(보리, 조, 쌀, 팥, 콩)를 바구니에 넣어 올린다.

이 외에도 액막이를 할 때 쓸 수탉 한마리와 배방선을 할 때 쓸 돼지머리 하나와 짚으로 만든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한다.

도제상 외에 마을의 각 집안에서는 축원용 제물을 각각 차려 오는데, 그 제물은 메 3, 돌레떡 3, 계란 3, 채소 3, 과일 3, 술 1병, 쌀 3사발, 소지 3장, 지전 3장 등이며, 선주의 집에서는 '선왕다리'라 하여 시렁목 1필에 선박이름과 가족이름을 적은 것을 마련해 온다.

굿하는날 아침이 되면 심방과 선주 집안 사람들이 일찍 나와 당의 북쪽 벽에 큰대를 세우고 제물을 진설한다. 큰대는 긴대를 세워 기를 달아매고 다리라고 하여 무명을 큰대에 묶어 매어 제단에 연결시켜 놓는데 旗에는 '玉皇上帝下鑑之位' '土地官都元師下鑑之位' '龍王大神靈登海神之位'의 문자를 써 놓는다.³⁴⁾

이렇게 제장의 설비와 제상의 진설이 끝나면 소무들이 북, 징, 설세 등의 악기를 치고 正裝한 매인심방의 노래와 춤으로써 굿이 시작된다.

칠머리당굿의 祭次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큰 제차의 진행부터 살펴보면

- 1) 초 감 제 : 모든 신을 청하여 坐定시키고 기원하는 제차
- 2) 본 향 들 : 본향당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놀리는 제차
- 3) 요왕맞이 :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맞아들이고 기원하는 제차
- 4) 마을 도액막음 : 마을 全體의 액을 막는 제차
- 5) 씨 드 림 : 해너 채취물인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리고 그 凶豊을 접치는 제차
- 6) 배 방 선 : 영등신을 배에 태워 本國으로 치송하는 제차³⁵⁾

주34) 앞의 책 p. 306.

주35) 앞의 책 p. 307~313 참조.

7) 도 진 :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큰 제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좀 더 작은 제차로 들어가 자세히 알아보면,

(1) 초 감 제

수심방은 신칼과 요령을 들고 龍王神과 선왕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실을 청한다. 이때 악기는 양측면에서 同時에 올리고 수심방은 제단에 3배를 드린 후 관중석을 향하여 절을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배포도업침으로 부터 굿이 進行된다.

① 배포도업 침 : 정장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서서 천지개벽, 月星辰의 발생, 國土의 形成, 국가 인물의 발생 등 지리, 역적 현상의 발생을 차례 차례 노래해 나간다. 이는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해설하며 바치기 위하여 천지개벽까지 확대시켜 說明을 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을 노래하는 것을 ‘배포친다’라고 하고 ‘인문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라고 한다.

② 날과 국 섬김 : 수심방이 굿하는 장소와 날짜를 신에게 고하는 굿이다.

③ 연유담음 : 여러 僭仰民들이 모여 이 당굿을 하는 사유를 신들에게 고해 올리는 단락이다.

④ 군문열림 : 신들이 下降하려면 신관의 문이 열려야 할 것이므로 이 대목은 신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심방은 군문을 여는 노래와 요란한 도랑춤으로써 군문을 여는 과정을 始行한다.

⑤ 분부사뵐 : 군문 열림이 끝나면 곧 신칼점과 신판점을 하여 군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신의를 신앙민에게 전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신관의 문이 곱게 열림으로써 신들이 즐거이 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⑥ 새도림 : 신관의 문을 열어 놓았으니 이제는 신이 오는 길의 모든 邪를 쫓아 깨끗이 해야 할 차례다. 댓잎으로 정화수를 적서 뿌리어 부정을 씻는 노래로 祭場을 정화시키고 사를 쫓는 노래를 흥겨운 무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며 정화시켜 나간다.

⑦ 정대우 : 소위 1만8천 신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제장으로 오시도록 청하는

대목이다.

⑧ 列名올림 : 모든 참석자들의 列名을 올려 축원하는 제차다. 船主會長, 洞長, 부인회장 순으로 차례 차례 해 나간다. 열명올림이 끝나면 초감제는 끝이 난다.

(2) 본 향 들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을 제장으로 청해 들여 좌정시키고 축원하는 제차다. 군복차림을 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노래와 춤으로 해 나간다.

① 배포도업 침

② 날과 국 섬김

③ 연유 닦음(이 세가지는 초감제와 같음)

④ 군문열림 : 본향당신이 들오 오는 문만 연다. 사설을 노래하고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도랑춤으로써 문을 여는 의례행위를 한다. 문을 여는 의례행위가 끝나면 무점으로 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앙민에게 그 결과를 傳達하는 분부사 립을 한다.

⑤ 신청케 :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차례다. 수심방은 감상기, 신칼, 쌀이 담긴 산판을 양손에 나눠 들고 당 입구쪽으로 가서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다가 신칼로 산 판에 담긴 쌀을 몇차례 뿌리고 나서는 다시 제단 앞으로 와서 춤을 추고 똑같은 방법으로 쌀을 뿌린다. 이런 行爲을 몇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신을 청해 들이는 행위의 一部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춤이 끝나면 수심방은 본향당신을 따라온 잠신(군병)들을 대접하는 몫으로 술과 밥 등을 당 바깥으로 힘차게 내 던진다. 이것을 '음복지주잔 내던짐'이라 하는데 심방은 "본향당신 뒤에 따라오는 여러 잠신들을 사귀자"는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고 격렬한 도랑춤을 춘 후 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잠신을 대접해 두고서 바로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게 된다. 이 場面은 신청케 제차에서 가장 極烈하고 嚴肅한 장면이다. 심방은 소무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복장의 징표인 '팔찌거리' (色布)를 오른쪽 팔목에 묶고 신칼, 감상기, 요

령을 들고서 격렬한 도랑춤을 추며 제장을 뛰어다닌다. 소무가 소주를 입에 물어 수심방에게 뽐어대며 “하! 하! 하!”하는 기성을 질러가면 수심방의 도랑춤은 더욱 격렬해져서 무시무시한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한참 도랑춤으로 제장을 휘돌던 수심방은 두 개의 신칼을 가위 모양으로 하여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 끼고, 두 눈을 무섭게 부릅떠 활쏘듯 손을 들어 달달 떨며 당 입구에서 제단을 향해 들어와 간다. 온 몸을 달달 떨며 완전히 신들린 사람처럼 무서운 표정을 하고 몸을 한바퀴씩 뻘뻘 감돌며 들어와 가면 參席한 信仰民들은 모두 일어서서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인다. 바로 본향당신이 제장으로 들어오는 무시무시하고 엄숙한 순간인 것이다.

⑥ 삼헌관 절 시킴 : 본향당신이 들어와 坐定하면 상신 代表 1인, 중선 대표 1인, 海女 代表 1인이 삼헌관이 되어 제단앞에 꿇어앉아 역가상을 올리고 拜禮를 한다.

⑦ 자손들 소지 올림 : 참석한 신앙민들이 10여명씩 차례로 제단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소지를 태워 올린 후 절을 한다. 심방이 옆에서 축원을 해준다.

⑧ 도산 받아 분부사됨 : 도산 받음이란 마을 全體의 1年 동안의 운수를 알아 보기 위하여 무점으로 그 신의를 알아보는 일이다. 신칼과 산판으로 점쳐 신의를 판단하고 신앙민에게 그 神意를 전달한다.

⑨ 석살림 : 흥겨운 가락과 춤으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祈願하는 제차다. 심방은 노래와 춤으로 신에게 향축을 올리고 술잔을 권하고 나서 ‘덕담’과 서우젓소리를 불러 춤판을 벌인다. 이 때 신앙민이나 구경꾼까지도 제장 한 가운데로 나와 흥겹게 춤을 추며 논다. 칠머리당 본향당신 도원수감찰지방관의 내력담인 본풀이도 이 때 노래 불러진다.

(3) 龍王 맞 이

바다를 차지한 용왕신과 영등신을 제장으로 맞아들여 기원하는 제차다.

요왕맞이를 하려면 먼저 용왕신과 영등신이 오는길, 곧 ‘요왕길’을 만들어 놓아

야 한다. 요왕길이란 1m쯤 되는 얇이 붙은 댓가지 8개씩을 제장 중앙에 2열로 나란히 꽂아 놓은 것이다. 이 댓가지에는 白紙, 紙錢, 돈 등을 걸어 놓는데 이 댓가지 하나 하나가 바로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문기고 그 댓가지 사이 길이 신들이 제장으로 오는 길인 셈이다. 요왕맛이 대나무는 8개중 한개는 초군문, 2개째는 이군문, 3개째는 삼시도군문, 4개째는 동의용왕, 5개째는 서의용왕, 백용왕, 6개째는 남의 용왕, 적용왕, 7개째는 북의 용왕, 흑용왕, 8개째는 용왕 거부소재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제장 설비가 끝나면 군복 차림의 심방이 굿을 해 나가는데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베포도업 침

② 날과 국 섬김(이 두가지는 초감제 때와 같음)

③ 연유담음 : 이 部分도 초감제 때와 같은데, 특히 海女와 船員들의 삶의 어려움, 바다에서의 위험한 作業을 이겨내고 자식들의 成功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 등 굿하는 사유를 고하는데 漁夫와 海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내어 준다.

④ 군문 열림 : 초감제 때와 비슷하게 행해진다.

⑤ 龍王질 침 :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맞아 들이는 제차다. 그 길은 매우 험한 길로 나타나며 용왕문 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작데기로 치우기, 은따비로 파기, 발로 고르기, 물메로 깨기, 삼태기로 치우기, 미레깃대로 고르기, 이슬다리 놓기를 함으로써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다 치워 닦은 것으로 된다.

⑥ 신청께 : 길을 다 치워 닦았으니 신을 청해 들일 차례다. 심방은 용왕과 영등신을 청해 들이는 노래와 춤으로 청해 모신다.

⑦ 나까도전 침 : 큰 시루떡을 空中으로 던졌다 잡았다 하며 춤을 추다가 여러 신들에게 이것을 올리고 下位 雜神들도 待接하는 제차다. 이 큰 시루떡을 '나까시리'라 하고 시루떡을 놀리며 춤 추는 것을 '나까시리 놀림'이라 말한다. 나까시리 놀림이 끝나면 심방이 무악에 맞춰 '지방 본풀이'를 노래 하는데 그 내용은 일찍 부모를 잃고 四顧無親한 지장 아기씨가 기구한 운명을 거쳐서 절간에 정성스레 불

공을 하고 마지막에 새뎀이 되어 태어났다는 이야기다.

⑧ 방광 침 : 해녀작업이나 고기잡이 나갔다가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술을 대접해 위로하고 바다를 차지한 용왕신에게 이 영혼들을 좋은 세계로 인도해 주도록 기원하는 제차다. 소무가 용왕문옆에 서서 징을 간간이 치며 서러운 목소리로 술을 대접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사고 기원한다.

⑨ 용왕문 열림 : ‘龍王門 연다’ 함은 용왕문이라 하여 꽃아놓은 댓가지를 하나 하나 뽑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심방이 용왕문의 한쪽 끝에 징을 들고서서 “동해바다 광덕왕길 서해용왕 광신용왕길 열려줍서. 어느 문엔 감옥 형방 옥서나장 도군 문 도대장 없오리까……” 식의 노래를 불러가면 부인회장, 해녀회장 등 信仰民 代表들이 용왕문앞에 대령상을 놓고 꿇어앉아 절을 하고 문을 곱게 열어 주십사는 뜻에서 돈(인정)을 바친다. 문을 열어 주십사고 노래하던 심방이 신칼점을 쳐 봐서 문이 잘 열린다는 占卦가 나오면 “열려맞자”고 외치며 징을 친다. 그러면 소무가 前進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뽑아 나가서 全部 뽑아지면 용왕문이 모두 열린 것이라 하여 용왕문을 상징했던 댓가지와 용왕길을 상징했던 무명을 태워 버린다. 이것으로 용왕문 열림 祭次가 모두 끝난다.

⑩지 아킴 : 바다의 용왕신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祭物을 白紙에 싸 던져 待接하는 제차다. 이 때가 되면 굶은 막판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면 參席한 신앙민들은 각기 자기가 차려온 제상을 적당한 자리에 옮겨다 놓고 앉아 일제히 백지에 여러 제물을 조금씩 떠 넣어 쓴다. 어떤 이는 두개, 어떤 이는 다섯개씩 그 수는 다르다. 용왕신 뭉, 선왕신 뭉, 外에 집안에 따라 죽은 영혼의 뭉을 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물을 백지에 싸는것을 ‘지 쓴다’고 한다. 지 싸기가 끝나면 모두 그 ‘지’를 들고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닷속으로 그것을 던지는데 이렇게 ‘지’를 내던지는 일을 ‘지 아킴’이라고 한다. 지 아킴을 할때 심방은 요령을 흔들며 다음과 같은 辭說을 노래한다.

“에—東海龍王 광덕왕문 열려줍서, 西海龍王 광신용왕문 열려줍서……”

“어—열려 있음는데 동해용왕 광덕왕에 용신지 아뢰자”

“에—船王紙 아뢰자”

“에—사해용신에 잠자는 불쌍한 영혼지 아뢰자”

(4) 마을 도액 막음

1年 동안 마을 전체의 모든 厄을 막음으로써 행운을 얻게하는 제차다. 액막이상을 내어놓아 심방이 ‘스만이 본풀이’를 창하고, 옛날 스만이가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장수한 사실을 근거삼아 액을 막는다고 하면서 사람 목숨대신 닭을 잡아가도록 하는 意味에서 수탉을 죽여 당 밖으로 내던진다. 그리고 무명과 지전을 많이 올려 용왕님에게 해난사고와 해안의 무안을 빈다.

(5) 씨 드림

‘씨 드림’이란 파종의 뜻으로 미역·전복·소라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바다에 뿌려 많이 번식하게 하는 제차이다. 먼저 심방이 서서,

‘영등할아버님, 영등할머님, 영등좌수, 영등별감, 영등호장님네가 천초·미역씨 주고 가십시오. 소라·전복씨 주고 가십시오. 그 뒤으로 잡줄 불러라, 무등애기 불러라. 금놀이 데놀이 하자……’

이런 내용의 사설을 창하면 전 악기가 일제히 울리기 始作하고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해녀 수 명이 나서서 한참 광적인 춤을 춘다. 해녀들의 어깨엔 좁씨를 넣은 ‘밀망탕이(끈이 달린 그마한 떡서리)’가 메어져 있다. 한참 춤을 추던 해녀들은 일제히 바다로 달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좁씨를 힘차게 뿌린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미역씨 뿌립니다. 소라씨·전복씨 뿌립니다. 많이 여십시오. 우리 일만 해녀들 살게 해 주십시오. 어—”하고 외쳐댄다.

이렇게 바닷가를 돌아가며 좁씨를 뿌리고 돌아오면 ‘씨점’을 한다. 제장에 돛자리를 동, 서, 남, 북으로 깔아놓고 심방이 다음과 같은 사설을 노래하며 좁씨를 뿌린다.

“에— 東京國에서 西京國으로 씨 뿌리러 가자. 에— 서경국에서 동경국으로 씨 뿌리러 가자. 에— 정씨 뿌리자”

이런 노래를 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뿌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 돛자리 바로위에서 수직으로 힘차게 뿌린다. 이렇게 하여 어느쪽의 씨가 잘 안가면 그 쪽이 흉년이라 하고 씨가 고루고루 가면 풍년이라 풀이한다.

(6) 배 방 선

이 칠머리당곳에서는 배 방선을 하기 직전에 命監놀이를 연출하는데 이것은 다른 당의 영등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심방이 영감을 청해 들인 후 심방과 영감의 對話를 이루어 나간다. 대화가 끝나면 배 방선이 시작된다. 배 방선은 영등신을 배에 태워 本國으로 치송하는 제차이다.

배 방선으로 들어 가려면 먼저 ‘送別盞 나눔’이라 해서 여러 신들이 송별의 술잔을 나누는 절차를 한다. 심방이 “용왕님과 선왕님도 화해 한 잔 하십시오. 필부 주잔 받고 가십시오. 영등대왕님과 각 본향당님들도 화해 한잔씩 필부 주잔 받으십시오.”하는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고 소무는 닭다리로 술을 적셔 제단 여기 저기에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송별잔 나눔이 끝나면 미리 짚으로 약 50cm 길이의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 배에 도제상에 올렸던 모든 제물들을 조금씩 떠 싣고 이 배를 어선에 실어 멀리 나아가 우도쪽으로 띄워 보내는 것이다.

(7) 도 진

모든 神들을 돌려 보내는 제차다. 平服차림의 심방이 이 당곳에 모셔졌던 신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돌아가십사는 사설을 노래 해 나가면 소무들이 북과 長鼓를 치며 북창해 가는 형식으로 始行된다.

이상으로서 당곳의 모든 제차는 끝이 난다.

濟州道 곳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굿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하는 일이 없이 제각기 흩어져 버리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있다. 그 이유는 잡신들을 다 쫓아내고 부정이 가셨으므로 다시 부정 탈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³⁶⁾

3) 巫服 및 小道具

① 巫 服

칠머리당굿에서 심방의 옷차림은 세가지인데 관디 차림과 軍服 차림, 平服 차림이다.

관디 차림은 심방의 정장으로서 수심방만이 차리는 服裝이다. 이 차림은 먼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은 후 그 위에 快子를 입고 다시 관디(冠帶)를 덧 입은 것이다. 쾌자의 색은 청색 또는 적색인데 戰帶라고 하는 띠(보통 황색)를 가슴 部分에 묶고 그 띠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긴 천을 묶어 매어 길게 늘어뜨린다. 맨 위에 입는 관디는 흔히 분홍색 또는 남색이다. 이 관디에는 흑색의 실타래를 가슴 부분에 묶어매어 늘어뜨린다. 바지의 무릎 밑에는 흰색의 행전을 치고 발에는 버선을 신어서 짚신을 신는다. 머리에는 남자인 경우 탕건을 쓰고 갓을 쓰며 여자인 경우에는 붉은색 또는 황색의 띠를 머리에 묶어맨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바지 무릎 아래 部分에 행전을 치지않고 韓服차림 위에 남자 수심방이 입는 조선조 시대의 관복을 입는다.

군복차림은 두루마기위에 쾌자를 입고 띠를 가슴 부분에 두르고 목 部分으로 '목거리 수건'이라는 천을 걸쳐 가슴 部分의 띠에 묶어서 앞에 늘어뜨린 복장이다. 그리고 머리에는 송락을 쓴다. 송낙이란 창호지를 오려서 삼각형으로 만든 것으로 종이 쓰는 모자를 모양 딴 것이다. 무릎 밑 部分에는 행전을 치고 발에는 버선과 짚신을 신는다.

特殊服 차림이란 영감놀이 할 때 가면을 쓰고 영감신으로 분장한 차림을 말한다. 갓양태만 붉은 파립을 쓰고 옷깃만 겨우 붉은 베도포를 입고, 총만 붉은 털어

주36) 장수근, 이보형, 「제주도 무흔 굿」, 열화당, 1983, p. 111.

진 미투리를 신고 한 뺨도 못되는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형상으로 扮裝한다.

平服차림이란 심방이 일상생활에서 입는 복장을 나타내며 남자는 양복, 여자 심방은 저고리, 치마 차림이다.

② 小道具

소도구에는 징, 북, 설채, 장고, 요령, 바람, 신칼 등이다.

징은 둥근 놋으로 만든 대아 모양의 악기다. 대양이라고도 한다. 직경 32cm, 깊이 9cm 정도의 것으로 둘레에는 손으로 들수있게 끈이 붙어있다. 이 징은 천신을 감동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은 높이 22cm 정도의 북통 양면에 쇠가죽을 붙인 兩面鼓로서 고면의 직경은 30~35cm 정도의 것이다. 사설을 노래하는 수심방 옆에 소무가 앉아 쳐 올리는데 그 치는 방법은 대로 만든 채롱위에 북을 세로로 세워올려 고정시키고, 북채를 양 손에 들어 오른쪽 鼓面만을 치는 것이다.

설채는 놋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다. 고면의 직경이 15cm, 깊이 6cm 정도의 것으로 한국 본토의 팽과리와 類似한 것이다. 설채를 채위에 고면을 위로하여 얹어놓고 소무가 앉아서 양손에 채를 잡아 친다. 巫儀에 있어 이 설채만을 치는 경우는 없고 수심방이 춤을 출 때 징, 북과 같이 반주악기로 병용한다.

長鼓는 고면의 직경이 30cm 내외, 통의 길이는 45cm 내외의 것으로 나무통은 중앙 부분에서 뚫어내었다 붙였다 하게 되어있다. 치는 방식은 심방이 앉아서 이것을 앞에 옆으로 놓고, 오른손에 가는 채를 잡아 오른쪽 고면을 치고 왼쪽 고면은 왼쪽 손바닥으로 친다. 장고는 무의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卽 징, 북, 설채, 장고는 심방이 춤을 출 때 반주악기로 使用된다.

요령은 손으로 들어올리는 鍾과 같은 것이다. 직경 7cm 내외의 크기로 놋으로 만들었고 밑 부분에는 1m 정도의 오색 천 조각이 달려있다. 이 요령은 군문 열림 할때 신문을 열어서 신을 청 할때 사용된다.

바람은 놋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것으로 背面의 중심부에는 끈이 붙어있다. 바

량은 2개가 한 쌍이 되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마주 쳐 울리게 되었다. 석살림 할 때 사용한다.

신칼은 길이 25cm 내외, 날의 길이가 13cm 내외, 자루의 깊이 12cm 내외의 것으로 자루에는 창호지를 길게 꿰은 다음 묶어 맨 끈이 달려있다. 이를 '신칼치마'라고 한다. 날의 옆면에는 S자 모양처럼 흔들흔들하게 가늘고 긴 점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자루는 일직선이 되지 않아서 조아져있는 모양으로 되어있다. 이 신칼로 신의를 알아보는 점을 친다.

4) 무 악

음악은 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共同的인 표현매체다. 특히 굿에서의 신명은 음악의 울림에 몸을 실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무악에 대하여 살펴보자.

濟州道의 무악의 리듬은 징과 설쇄가 박자를 때려주고, 북의 자유로운 꾸밈음이 어울려 리듬 구성을 하고있다. 제주도의 굿은 陸地의 굿처럼 비슷한 음악적 구성을 갖는 '거리'의 나열이 아니고 각 거리가 굿 전체의 기능에 따라 음악적 구성이 다르게 되어있다. 제주도의 무악에서 리듬의 명칭은 祭次의 명칭에다 '-연물'하는 식으로 '연물'이라는 어미를 붙인다. '연물'은 무악기를 가르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악기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리듬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춤의 장단은 '동-댕, 동-댕, 동-댕, 동-댕'하는 3분박 4박자로 처음에는 느리게 다음에는 보통 빠르게 나중에는 빠르게 친다. 느린것을 '늦은 석' 또는 '늦은 연물' 이라하고 보통 빠르기는 '중판'이라하며 빠른것은 '잡은 석' 또는 '잡은 연물'이라 이른다. 늦은 석, 중판, 잡은 석을 삼석치기라 이르기도 한다.³⁷⁾

주37) 앞의 책 p. 120.

II. 研究 대상 및 방법

1. 研究 대상

연구대상으로는 현재 제주도 북군 구좌읍 동김녕리 156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순실 심방을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고 안사인³⁸⁾ 심방의 무업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2. 研究 期間

- 1차, 1986年~1989年 :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 2차, 1990年 : 연구 대상자 개별 방문 조사 및 자료정리
- 3차, 1991年 : 기초 자료에 의한 Video 분석 및 사진촬영
- 4차, 1991年 5月 : 원고 작성

3. 研究 方法

民間에서 오랫동안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무속의 양상을 보고 듣고 記錄하는 민속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존함과 동시에 문순실 심방으로부터 個別的으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연구 방법과 각 거리별 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춤 現場의 반복적인 관찰을 위해 Video를 利用하여 영상으로 포착하고 그 래도 애매한 동작은 개인 방문하여 시범을 보는 형식으로 포착하였고 確定된 동작은 사진 촬영을 하여 무보화 하는데 참고 하였다. 그리고 칠머리 당곳의 유래, 실태로서 곳의 진행, 무악, 무복 및 소도구는 무무보다 먼저 조사하여 장단에 의한 무무(발 동작과 춤 사위)를 고찰하는데 핵심을 두었다.

주38) 안사인;1989년 무형문화재 71호 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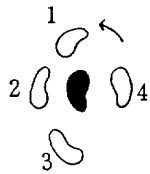
Ⅲ. 결과 및 고찰

1. 요왕질침의 춤사위 形態

1) 요왕문 돌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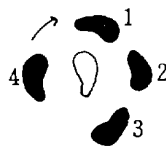
그림 1-1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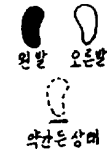
그림 1-2



1-1~1-3



그림 1-3



원발 오른발

작은손상머



그림 1-4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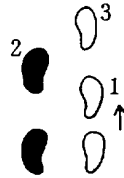


그림 1-6



1-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왕문 돌아봄은 “용왕과 영등신이 오시려는데, 요왕질이 어찌 되었는지 돌아보자”는 노래를 부르고 용왕문 사이를 돌아보는 춤을 춘다.

신칼과 요령을 들고 요령은 오른손에 신칼은 왼손에 든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손을 메고 오른손은 앞으로 감고,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손 메고 왼손은 뒤로 약간 감는다.

팔동작과 발동작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동작은 제1박에 우족은 ①로 스텝하고 제2박에 ②로 스텝하고 제3박에 ③으로 스텝하며 제4박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왼발이 축이 되어 회전한다. 이 동작은 오른발을 축으로하여 반대방향으로 행한다.

이때 팔의 동작은 제3스텝까지는 팔을 수평으로 들고 제4스텝에서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손은 어깨위에 메고 왼손을 뒤로 약간 감는다.

소품은 그림 1-4, 1-7과 동일하다.

오른쪽으로 돌고나서 제1박에 우족을 뒷꿈치부터 부드럽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앞으로 내딛고, 제2박에 왼발을 스텝하며, 제3박에는 오른발 제4박에는 왼발, 이러한 형식으로 요왕질 끝까지 전진한다. 제자리에서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진시의 팔동작은 제1·2박에서는 오른손 팔목을 약간 뿌리고 3·4박에서는 양손을 동시에 비껴 위로 뿌리고 5·6박에서는 왼손 팔목을 약간 뿌리고 7·8박에서는 양손을 비껴 위로 뿌린다.

전체적으로 발동작이 그리는 선은 원형과 전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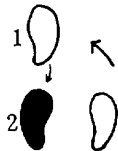
2) 언월도 베기



그림 2-1



그림 2-2



2-1~2-2



1-1~2-2

언월도 베기는 “요왕질을 돌아 보았더니 여러가지 해초가 무성하여 신들이 도저히
울 수 없다. 언월도를 타다가 베어버리자”는 노래를 부르고 신칼을 들어 베는 시늬
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천천히 휘어잡고 다리는 굴신하면서 실시하고 양손과 다리는
부드럽고 빠르게 실시한다. 오른발 앞에서 실시한 다음 끝나면 반대편으로 가서 왼
발 앞에 놓고 실시한다. 팔과 발동작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박에 우족은 ①로 스텝하고 제2박에서 굴신을 시작하여 7박까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굴신하고 제8박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다음은 좌족을 ①로 스텝하여
반복 굴신한다. 이때 팔의 동작은 다리를 굴신할 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내어 뺀다
가 휘어잡는다.

전체적으로 발과 팔의 동작은 부드럽고, 4박까지는 천천히 움직임이다 5·6·7박은

빠르게 실시한다.

3) 작대기로 치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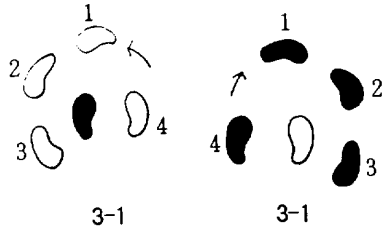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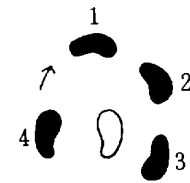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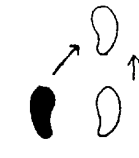
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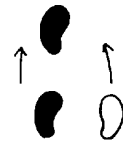
3-1



3-1



3-2



3-3

작대기로 치우기는 “무성한 해초를 베어 놓았으니, 이를 작대기로 치워 버리자”는 노래를 부르고 댓가지를 들어 치우는 시늉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돈다. 작대기를 수평으로 들고 오른쪽 왼쪽으로 한바퀴 돈다.

오른발 앞에 놓고 작대기로 치우고 왼발을 앞에 놓고 작대기로 치우고 뒤쪽에 있는 발을 앞으로 놓으면서 돈다.

발과 팔동작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는 동작은 요왕문 돌아봄과 동일하고, 오른쪽으로 돌고나서 제1박에 오른발을 3-2의 발동작 ①의 위치로 내어딛고 2박에서 7박까지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8박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어밀어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때 팔의 동작은 돌 때는 작대기를 수평으로 허리에 잡고 돌며, 그 다음 제1박에 앞으로 내어 뺄 때는 작대기를 약 45° 아래로 뺀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동작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4) 은따비로 파기



그림 4-1



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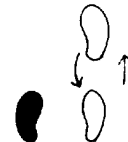
그림 4-3



4-1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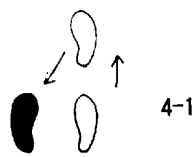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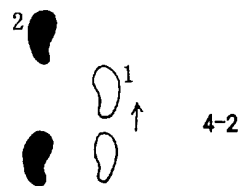
그림 4-4



그림 4-5



4-1



4-2

은따비로 파기는 “치우고 보니 그루터기가 우둘투둘해서 신이 못 들어올 듯 하다. 이 그루터기를 은따비로 파자”는 노래를 부르며 파는 시늉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돈다.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작대기에 올려놓고 두번씩 굴신한다.

오른발 앞에 놓고 작대기로 중심 잡고 좌우로 흔든다.

발과 팔동작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박에 작대기를 수직으로 뺀어 제3·4박에 오른발을 약 60° 정도 앞으로 들고서 제5·6박에 좌우로 흔들고 제7·8박에 본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 다음은 왼발을 반복하고, 그다음 제1·2박에서 오른발을 뺀어 던고서 제3·4·5·6박은 좌우로 흔들고 제7·8박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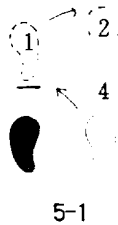
제1·2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던고 제3·4박에 왼손은 작대기를 수직으로 잡고 구부러 앉은 다음 제5·6박은 오른손으로 땅을 두번 두드리고 제7·8박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지막 동작은 작대기를 수평으로 해서 허리에 대고 제1박에 오른발은 ①의 위치로 스텝하고 제2박에 왼발을 ②의 위치로 스텝하는 형식을 취한다.

5) 발로 고르기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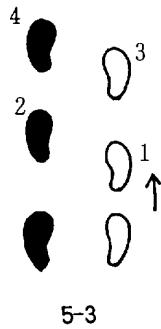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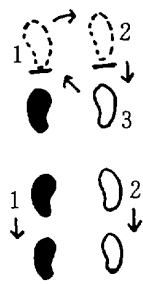
그림 5-2



그림 5-3



5-3



5-4



그림 5-4

발로 고르기는 “그루터기를 파고보니 지면이 우물두물해서 신이 오는데 불편하겠
다. 편평하게 고르자”고 노래하며 발로 밟아 고르는 시늉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돈
다.

왼발을 중심 잡고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살짝 밀고 다시 들어서 오른쪽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팔과 발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왼발을 축으로 하여 제1·2박에 오른발을 왼쪽발 앞으로 살짝 밀고(5-1의 발동작)
제3·4박에서는 다시 ②의 위치로 옮겨 살짝 밀고 5·6·7·8박에 제자리로 돌아온
다. 그 다음은 오른발을 축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동작을 실시한다.

그 다음 발동작은 1박에 오른발을 내어밀고 제2박에 왼발, 제3박에 오른발, 제4박
에 왼발 형식으로 앞으로 스텝한다.

마지막 발동작은 왼발을 축으로 하여 제1·2박에 오른발을 왼쪽발 앞으로 살짝 밀
고(6-1의 발동작), 제3·4박에서는 다시 ②의 위치로 옮겨 살짝 밀고 5·6·7·8박
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서 왼발부터 뒤로 1박씩 스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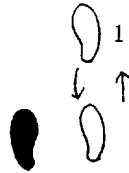
팔의 동작은 양손을 허리에 올려놓고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스텝은 가볍고 동작은 부드러우며, 뒤로 스텝할 때 살짝살짝 미는 동
작과 다리를 어깨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스텝하는 것이 특징이다.

6) 물메로 깨기



그림 6-1



6-1~6-2



그림 6-2

물메로 깨기는 “지면을 고르다보니 울퉁불퉁한 돌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깨야 하겠다”고 노래하고 요령을 흔들며 깨는 시늉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돈다. 양발을 굴신하면서 손을 좌우로 감는다. 돌아와서 반대로 실시한다.

반대로 돌아갈 때는 요왕문 돌아봄과 동일하다.

발동작과 팔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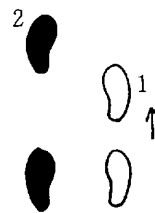
발동작은 제1·2박에 오른발은 앞으로 딛고 제3·4·5·6박에 전후로 무릎을 굴신하며 제7·8박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의 팔동작은 3·4·5·6박에서 계속해서 밖으로 안으로 휘어잡는다.

7) 삼태기로 치우기



그림 7-1



7-1

삼태기로 치우기는 “깨어놓고 보니 돌맹이가 굴러 곤란하다. 삼태기로 치워 버리자”고 노래하면 신앙민들이 나와서 요왕질에 있는 돌들을 치운다.

돌을 무겁게 지고가는 모습으로 허리는 약간 굽히고 스텝은 부드럽게 간다.

팔과 발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약간 굽은 상태에서 제1박에 오른발, 제2박에 왼발 3번에 오른발, ...하는 순으로 반복 스텝한다.

이때 팔동작은 등짐을 진 모양을 한다.

8) 미레깃대로 고르기



그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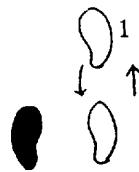
8-1~8-2



그림 8-2



그림 8-3



8-3~8-4



그림 8-4

미레깃대로 고르기는 “돌맹이를 치우고 보니 지면이 움푹움푹 패어져 고르지 못하다. 미레깃대로 편평히 밀자”고 노래하면 신칼을 가로들고 밀어담는 시농의 춤을 추며 요왕문을 돌아본다.

왼발을 앞으로 놓고 양손을 비껴서 앞으로 흔든다. 그리고 나서 뒤로 흔든다.

팔동작은 미는 것처럼 실시하고 앞에 동작이 끝나면 반대편으로 실시한다.

팔동작과 발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동작은 제1·2박에 왼발을 앞으로 딛고 체중을 앞으로 옮기고 제3·4박은 뒤로 중심을 옮기면서 5·6박은 중심을 완전히 이동하며, 7·8박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팔동작은 제1·2박에 양손을 앞으로 뻗고 3·4박에는 비껴서 나란히 위로 뻗고 6·7은 양손을 살짝 흔들고 7·8박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9) 이슬다리 놓기



그림 9-1

이슬다리 놓기 “길을 밀어놓고 보니 먼지가 일어나 못 쓰겠다. 이슬다리를 놓자”고 노래하고 술을 한모금 뿌린다.

앞으로 나가면서 실시한다. 발을 약간씩 들면서 실시한다.

발동작과 팔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동작은 제1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어딛고, 제2박에 왼발, 제3박에 오른발, ...
의 형식으로 앞으로 스텝한다.

이때 팔동작은 술잔을 어깨 높이로 들고 팔을 벌린 상태이다.

10) 나비다리 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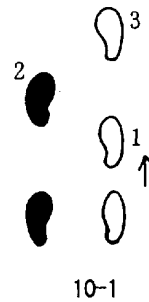


그림 10-1

나비다리 놓기 “띠를 뿌려 놓았더니 밧을 적마다 바삭바삭하여 못 쓰겠다. 나비다
리 놓자”고 노래하며 종이조각을 뿌린다.

앞으로 나가면서 뿌린다. 스텝을 할 때는 발미는 형식으로 한다.

발동작과 팔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동작은 이슬다리 놓기의 동작과 비슷하다.

팔의 동작은 양팔을 어깨 위로 든다.

2. 춤사위 분석

1) 무무의 특징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무당춤은 신의 강령을 청하고, 신을 즐겁게 하

여 재앙을 물리치고 길복을 구한다든가,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수행되는 제의의 한 부분으로서, 무무보다 절실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민족사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민족정신을 터득해 내는 면에서도 오늘날의 무용과 다르다 하겠다.

제주 칠머리당굿의 요왕질춤 무에 나타난 무당춤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성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제의 절차에 나타난 무무의 특징은 소박하고 차분하며 정중동의 요소가 많은 편이다. 즉, 제반 동작이 근엄하고 정성스러우며 신중하다.

둘째, 구성이나 내용, 동작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제한된 공간을 심분 발휘하여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춤을 진행하며, 때에 따라서 무녀의 동작이나 표정은 다분히 연극적 요소가 풍겨진다. 작대기로 치우기, 은따비로 파기에서 나타난다.

셋째, 발동작은 섬세하며 굽춤은 언제나 발의 뒷발부터 디더 걸어나가고 순간적으로 발끝 멈춤과 뒤로 스텝할 때 미는 동작이 특이한다.

네째, 발목, 팔목 사용이 부드럽다.

다섯째, 무릎 굴신은 많이하는 편이나 민속무 특유의 어깨 춤사위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춤이나 자기감정 표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 풀이한다.

여섯째, 앞으로 스텝할 때 몸 전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동한다.

일곱째, 앞으로 나가는 직선운동, 제자리 돌기, 한 발 들고 굴신하는 형태의 춤사위를 반복하고 있다.

여덟째, 무무에서 팔동작은 모두 신칼, 요령, 작대기, 땃섬, 술잔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아홉째,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고 호소력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속춤의 동작은 다양하지 않고 간단하며 단순한 동작의 연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통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순한 동작을 규칙적으로

거듭 반복함으로써 주술적인 효과를 고양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춤의 기능

이 부분에서는 칠머리당굿 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능을 살펴 보았다.

칠머리당굿에서 춤은 거의 각 거리마다 굿의 내용에 따라 무당에 의해 직접 主祭되면서 춤으로 표현된다. 즉 춤은 굿 형식의 단순한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갖는다.

① 연극적 기능

신의 성격에 따라 감정과 표정 변화가 다르며 화가 난 표정과 울먹임은 연극적 요소가 짙게 나타난다.

② 점술적 기능

신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거나 신칼이나 산판으로 점을 쳐서 군문이 열렸는지, 어떤 채취물이 흉풍이 되는지 점을 치며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점술적 능력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지금까지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성에 관한 민속학적 자료를 토대로 문순실씨를 통하여 본 제주 칠머리굿 중 요왕맛이 굿춤의 발동작과 춤사위의 형태적 분석 그리고 무무의 특징과 굿에서 나타난 춤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서 굿에서의 춤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칠머리당굿의 요왕맛이 춤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무당의 춤이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이루어지고 구성이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이러한 단순한 동작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주술적 효과를 고양하는 특징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타도의 민속무용은 평범하게 앞뒤로 오고가는데, 요왕맛이 춤은 앞으로 갈 때 순간적인 발끝 멈춤과 뒤로 갈 때 발을 미는 동작이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스텝할 때 몸 전체가 좌우로 흔들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칠머리당굿 춤의 기능적 면에서는 각 거리마다 굿 내용에 따라 직접 주제가 되며 단순한 굿 형식의 보조역할만이 아니라 연극적, 오락적, 점술적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칠머리당굿에서는 거의 각 거리마다 무용예술의 근원인 무용적 요소들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거리별 나타난 밀도높은 무용적 요소는 예술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2. 제 언

1) 본 연구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중에서도 요왕맛이 부분의 춤의 형태적인 분석만을 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전체적인 무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또 이러한 무무의 분석과 아울러 타도의 무당춤과의 특징적인 면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3) 앞으로 칠머리당굿 춤의 예술적 측면을 발췌하여 창작무용, 민속무용으로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A Study on Dances performed in Chilmori Danggut on Cheju-do

Lee Chang-hoon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e Yong-ho

Shamanism is our folk religion, in which people in this country have had faith for a considerably long period. Religion prescribes to people how to live and what to do. People are asked to live according to it. It is possible to say that religion is linked closely with culture.

Shamanism on Cheju-do is more well-preserved than in the other districts. Fisherman and diving women (Haenyo)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field of economy on Cheju-do. Chilmori danggut has been held in every village, because the Grandmother Yongdung, who has been honored in a gut, is the spirit who keeps safety on the ocean and who brings them a good harvest.

Research on Shamans' dance goes on actively in other regions, yet there are not as many research activities on Cheju Chilmori Dangg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urnish basic data for investigating intrinsic attributes of Chilmori Danggut dance, through examining the formal meaning of steps and body-motion in the dance, as well as its feature and function, especially centering around the part of 'Welcoming Yowang'.

The dance of Moon Sun-shil is approached as an aspect of folklore. Of

course, fieldwork of visiting her directly and observing her dance is part of the study. Her dance-motion is illustrated by a picture in this thesis.

This study, dealing with the form of the dance in 'Welcoming Yowang' is not sufficient to put to use, so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Chilmori Danggut dance as a whole. Furthermore, it's necessary to compare Cheju Chilmori Danggut dance with gut dances of the mainland.

It is worthwhile grafting Cheju Chilmori Danggut to modern creative dance or to popular for dance, in the aspect of art.

